

# 기업의 융합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최승일\*, 송성빈\*\*  
창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오산기업자문단\*\*

## A Study on The Effect Business Performance of Convergence Capabilities on Corporate

Choi Seung-II\* Song Seong-Bin\*\*

Dept. of International Trade,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OSAN CORPORATE ADVISORY CO.\*\*

**요약** 현대사회는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융합에 대한 열풍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다. 융합경영이란 제품, 기술, 서비스 등과 같은 경영의 제반 활동들이 양자택일의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려는 일련의 경영혁신활동으로 인식된다. 또한 기업은 끊임없는 성과창출을 통해서 생존하게 된다. 글로벌화 되어 있는 현대에서 기업의 성과는 더더욱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융합 필요성에 근거를 두고 기업의 융합역량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으로는 융합경영을 시행해 본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융합역량과 경영성과간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융합역량은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기술개발역량과 융합교육학습역량이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융합, 융합경영, 경영성과, 융합역량

**Abstract** Modern society is rapidly going digital as blowing hot air about it Convergence castration. Iran fusion product management, technology, and services such as free from black-and-white logic of various activities such as management of alternative recognition by further series of management innovation in the way of trying to fill the other gaps win-win.

In addition, the company is to survive through the creation and unceasing. Performance of firms in contemporary globalization, which is still more sensitive. In this study, based on the fusion needs of the enterprise and explores how this convergence competencies affect to business performance.

Results showed that the fusion capacity is affecting the financial performance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That fusion technology education learning capability and convergence capabilities appeared to affect the financial performance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Key Words** : Convergence, Convergence Business, Business Performance, Convergence Capabilities

Received 21 July 2014, Revised 29 August 2014

Accepted 20 Octo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Seong-Bin, Song  
(OSAN CORPORATE ADVISORY CO.)

Email: ssb222@naver.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현대사회는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융합에 대한 열풍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다. 융합경영이란 제품, 기술, 서비스 등과 같은 경영의 제반 활동들이 양자택일의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려는 일련의 경영혁신활동으로 인식된다.

PC와 인터넷을 앞세운 융합은 제품에 대한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기존의 아날로그 제품에 디지털 기술이 결합해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그 예로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냉장고 등 다양한 제품을 실생활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현대를 융합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융합이라는 테마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융합추진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840개의 조사 대상기업 중 92.8%가 이업종간 융합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9]. 이 조사 결과는 현시대가 융합의 시대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끊임없는 성과창출을 통해서 생존하게 된다. 글로벌화 되어 있는 현대에서 기업의 성과는 더욱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융합 필요성에 근거를 두고 기업의 융합역량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융합경영의 방향제시와 전략수립의 기초가 되고자 한다.

## 2. 이론적 고찰

### 2.1 융합경영의 개념과 필요성

#### 2.1.1 융합경영의 개념

학문으로서의 경영학은 그 뿌리를 BC 6세기 춘추시대의 손자병법이나 18세기 중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찾을 수도 있으나 20세기 초반, 즉 테일러(Taylor)의 과학적 관리론, 페이올(Fayol)의 관리과정론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후 지금까지 근 100년 동안, 경영학은 인사·조직, 마케팅, 재무·회계, 생산관리, 국제경영 등 분야에서 이

론적 발전을 계속해 왔음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와 시장·고객의 욕구 변화, 그리고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왔다. 예를 들면, 1950년대의 계량경영, 1970년대의 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1980년대의 품질경영, 그리고 1990년대의 전자상거래 또는 e-비즈니스가 그것이다. 2000년대에 나타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유비쿼터스 IT(Information Technology)를 이용한 유비쿼터스 경영(또는 u-비즈니스), 환경오염이나 에너지 고갈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또는 그린) 경영, 그리고 종래의 IT는 물론, 나노, 바이오, 콘텐츠, 로봇 등의 신기술과 더 나아가 문화예술, 감정 등의 이슈를 경영에 접목한 융합 경영 등을 들 수 있다.

융합 경영은 아직까지 보편화 된 용어·개념은 아니지만, 최근 학계, 연구계의 일각에서 ‘융합 기술, 융합 제품·서비스, 융합 산업 등에 대한 경영’이라는 의미로 쓰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융합경영은 제품, 기술, 서비스 등과 같은 경영의 제반 활동들이 양자택일의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 상생(相生)의 길로 나아가려는 일련의 경영 혁신 활동을 의미한다.

#### 2.1.2 융합경영의 중요성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독창적인 경영합리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업의 공동화와 협동화뿐만 아니라 기업중기업간의 교류에 의한 경영능력의 강화까지도 요청 받고 있다. 특히 자본과 기술인력면에서 구조적으로 미약한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속한 시장개방과 국제화 기술혁신의 진전, 수요구조의 변화 등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경영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다[2].

이처럼 기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오늘의 기업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다른 선진공업국가의 기존기술을 도입하거나 이를 개량하는 것만으로는 날로 격화되는 국제적 경쟁을 극복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영환경의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체 연구개발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독창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기업중교류는 자본, 기술, 인력 시장 등 모든 면에서 열세에 놓여있는 기업들이 서로 가

진 정보, 기술, 노하우를 교류, 통합하여 나눔으로써 각 기업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인 것이다.

기업간 융합은 과학기술 영역뿐만 아니라 인문학, 사회학 등의 학문영역에서 나아가 사회, 문화, 정치, 경제를 막론하고 전 분야에 걸쳐 요구되는 방향이지만, 기술혁신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세대 기술혁명에는 IT, BT, NT 등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신기술 간 융합이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융합기술은 의료·건강, 안전, 에너지·환경문제 등 미래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산업 간, 서비스 간 융합을 유발하여 경제·산업 전 분야에 걸쳐 막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 2.1.3 융합역량의 개념 및 구성

현대 기업경쟁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가 핵심역량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Prahalad는 기업이 보유한 역량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핵심역량과는 달리 경쟁우위를 보장하거나 만들어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이 보유한 자원에 대하여 차별화를 주장하였다[13]. 또한 Mahoney(1995)는 경영관리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기업특유의 관리기술 등이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10].

이처럼 기업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최고 의사결정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학문적·현실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4,5,7,11,18].

이러한 문헌 연구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융합 경영에서의 핵심역량으로서 융합기술개발 역량, 융합 교육학습역량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행한다.

## 2.2 경영성과의 개념과 구성

### 2.2.1 경영성과의 개념

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조직이 달성해야 할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의 목표 달성 여부는 성과로서 표현될 수 있다.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경영성과는 조직의 목표달성도,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획득을 위한 환경의 개척능력,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 및 생존능력, 인적자원 개발과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직능력, 기업의 생산성 또는 수익성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

다[3].

기업에서 성과는 생산성, 품질, 적시성, 대응성, 효과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경쟁자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고객을 만족시켜서 조직이 성취한 것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성과는 효율성과 효과성에 의해서 결정된다[1,15].

성과의 측정은 항상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만족과 밀접하거나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거의 반세기동안 학자들과 경영자들 사이에서 주된 관심사였다. 성과기준은 경영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알기 위한 척도이며, 경영목표의 달성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성과를 정의하여 측정하는 것은 성과향상의 기본단계이므로 성과측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 2.2.2 경영성과의 구성

가. 재무적 성과

재무적 활동을 측정함으로써 기업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 것들이 기업의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는가의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이를 측정하는 측정지표로는 투자수익률, 경제적 부가가치, 수익성과 영업이익,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자본회전율 및 현금흐름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은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재무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 기업의 수익과 가치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고 회계기준에 의해 회계수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적절치 못하다. 이에 기업의 자본과 부채를 합친 총비용을 고려하여 얼마의 이익을 내느냐에 중점을 둔 EVA에 의한 평가가 증가하고 있다[14].

재무적 성과 지표들은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다른 관점과 관련된 성과지표들을 이용해서 실행한 전략들이 얼마나 향상된 결과를 낳는지 알려준다.

중소기업은 초기에서는 자금을 가지고 있으나 시제품 생산, 대량생산 설비 구축, 마케팅 채널 구축 등으로 옮겨갈수록 재무자원에 한계를 가지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표를 통한 성과측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성과의 측정변수로서 매출액 증대와 수출 증대를 측정하여 활용하였다.

나. 비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는 아직까지 측정에 많은 애로가 존재

한다. 따라서 비재무적 성과는 일반적으로 조직과 관련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까지 조직성과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여러 선행연구들은 조직성과의 정의를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조직성과의 다양한 개념을 관점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첫 번째 목표의 달성도를 효과성으로 보는 관점, 둘째 능률성과 효과성을 포함하여 같이 보는 관점, 셋째 능률성, 효과성, 대응성, 형평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 마지막으로 능률성과 효과성, 공정성으로 보는 관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17].

조직성과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김상묵은 Brewer & Seldon의 연구에 기초하여 조직성과의 영향요인을 직무 만족, 조직몰입, 공공서비스동기, 조직시민행동으로 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하고 있다[16]. 또한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기업의 규모와 조직의 업력이 있다. 대개 조직의 규모는 매출액과 직원수로 결정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들어 보유직원의 수가 변동적이다. 이는 곧 자원적인 이점을 감소시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또한 조직의 역사가 오래 될수록 회사의 활동과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비재무적 성과의 측정변수를 생산현장에서의 성과로 설정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측정하여 활용하였다.

### 2.3 융합역량과 경영성과간의 관계

김옥환(2005)은 교류활동의 현황과 이를 통한 경영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류활동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업종교류 활동 후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신뢰도와 사회적 책임의식이 제고되었고 기업내부 조직의 운영에서 높은 혁신마인드를 갖게 됨으로써 목표 및 성과관리에서도 성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직원복지, 개인생활향상 급여지급, 의무능력보상교육 실시, 이직률, 직장 만족도등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출석률 저조, 정부의 지원 부족 등은 아직도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12].

송재희(2008)는 우리나라에서의 이업종교류활동은 그 역사성이 20여년이나 되고 있고 그 운영형태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활동하고 있으나 이업종교류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네트워크구축 및 정보교류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종업원 수, 매출액, 자산규모 등의 기업특성과 정보공유, 기술개발마케팅활동 등의 만족도와 상호관련성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였고 기업특성과 매출액증대, 순이익증대 등의 경영성과와의 상호관련성에 대해서도 검증하였다[8].

이대훈(2009)은 현재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이업종교류의 현황을 실증분석해보고 이업종교류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6].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융합역량과 경영성과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융합역량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융합기술개발 역량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융합교육학습역량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융합역량은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융합기술개발 역량은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융합교육학습역량은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실증분석

### 3.1 조사 설계 및 분석내용

문헌연구를 토대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 조사하여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경남지역 소재 기업 중 융합경영을 실시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14년 8월 23일부터 9월 21까지 약 30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총 설문지는 400부 중 381부가 최종 회수되었으며 이 중 통계처리에 활용이 불가능한 18부를 제외한 363부를 통계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처리를 위해 SPSS 18.0을 이용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도구들의

각 설문항목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각 변수의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고, 가설검증을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2 기초분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하여 활용된 설문지는 363부이며 기초 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제조업이 5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설립 년수는 5년 이하가 31.1%로 가장 많았고 5년 초과 10년 이하는 26.4%를 차지하고 있다. 종업원수는 50명 이하가 75.5%를 차지해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1〉 Frequency Analysis

	item	person	%
Category	Manufacturer	193	53.2
	Services	123	33.9
	Wholesalers retailers	24	6.6
	Construction	7	1.9
	기타	15	4.1
Years of establishment	5 year below	113	31.1
	6 - 10 year	96	26.4
	11 - 15 year	80	22.0
	16 - 20 year	25	6.9
	20 year more than	49	13.6
Sales (month)	10,000,000 won below	24	6.6
	10,000,001-20,000,000	15	4.1
	20,000,001,-30,000,000	19	5.2
	30,000,001,-50,000,000	28	7.7
	50,000,001,-100,000,000	43	11.9
	100,000,001-200,000,000	82	22.6
	200,000,001-300,000,000	27	7.4
	300,000,001-500,000,000	28	7.7
500,000,001 more than	97	26.8	
Employees	50 below	274	75.5
	51 -100	59	16.3
	101 - 200	18	5.0
	201 - 300	12	3.2
	301 more than	0	0

### 3.2 신뢰성, 타당성분석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분석에 있어서 동일한 개념들을 측정하기 위해 다 항목 척도를 이용하므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일관성 기준에 따라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0.7이상이면 신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타당성분석의 방법으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의 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고, 요인이 적어도 1개 이상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아이겐 값(Eigen value)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항목의 축소와 각 요인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직각회전(Varimax Rotation) 방식을 취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Table 2〉 Reliability, Factor analysis of leadership type

variables	1	2	Cronbach's $\alpha$
study2	.887		.884
study1	.859		
study3	.785		
T. D 2		.873	.873
T. D 1		.838	
T. D 3		.796	
Eigen	2.442	2.400	
%	40.694	40.005	

〈Table 3〉 Reliability, Factor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variables	1	2	Cronbach's $\alpha$
Export1	.879		.924
Export4	.860		
Export2	.826		
Export3	.815		
Sales2		.826	.891
Sales1		.823	
Sales4		.818	
Sales3		.787	
Eigen	3.236	3.058	
%	40.451	38.219	

〈Table 4〉 Reliability, Factor analysis of sales

variables	1	2	Cronbach's $\alpha$
Productivity2	.866		.875
Productivity1	.819		
Productivity3	.762		
Quality1		.869	.835
Quality2		.787	
Quality3		.613	
Eigen	2.562	2.133	
%	42.704	35.544	

### 3.3 가설검증

#### 3.3.1 가설 1의 검증

융합역량과 재무적 성과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가설 1의 검증을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Table 5〉 Verification of Hypothesis 1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920		2.928	.004
vision	.021	0.22	.149	.882
motivations	.366	.125	2.936	.004**
goal	-.093	-.102	-1.311	.193
analysis	.385	.317	2.743	.007**
R <sup>2</sup> =0.436, F=22.768(p=0.000)				

분석 결과 R<sup>2</sup>값이 0.381이고, F값이 110.121(p<0.001)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본 연구의 회귀식, 즉 연구모형이 재무적 성과에 전체 분산 중 38.1%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의수준은 p<0.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적이어서 융합역량은 재무적 성과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1-1은 융합기술개발역량요인이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t값이 6.551이며 p<0.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융합기술개발역량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며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가설 1-2는 융합교육학습역량이 재무적 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t값이 5.759이며 p<0.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융합교육학습역량은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설 1-1의 융합기술개발역량, 1-2의 융합교육학습역량은 재무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융합역량은 재무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으며 융합역량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3.2 가설 2의 검증

융합역량과 비재무적 성과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Table 6〉 Verification of Hypothesis 2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2.458		8.442	.000
vision	-.192	-.258	-1.474	.143
motivations	-.293	-.420	-2.532	.013*
goal	.158	.228	2.407	.018*
analysis	.530	.570	4.074	.000***
R <sup>2</sup> =0.170, F=6.029(p=0.000)				

분석 결과 R<sup>2</sup>값이 0.340이고, F값이 92.135(p<0.001)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본 연구의 회귀식, 즉 연구모형이 비재무적 성과에 전체 분산 중 34.0%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의수준은 p<0.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적이어서 융합역량은 비재무적 성과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2-1은 융합기술개발역량이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t값이 7.834이며 p<0.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융합기술개발역량은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며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가설 2-2는 융합교육학습역량이 비재무적 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t$ 값이 3.234이며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융합교육학습역량은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설 2-1의 융합기술개발역량, 2-2의 융합교육학습역량은 비재무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융합역량은 비재무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으며 융합역량은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결론

이상의 가설검증을 토대로 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가설 1의 결과를 살펴보면 융합역량은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요인으로 융합기술개발역량과 융합교육학습역량이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융합기술개발역량은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융합경영을 행하는 기업에서 융합경영을 수행하면서 융합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융합경영을 수행하면서 기초, 원천, 융합기술에 대한 강화노력을 경주하며,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지원과 융합분야 국제 표준화 선도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면 재무적 성과는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융합교육학습역량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융합경영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융합경영을 수행하면서 융합기술 전문 교육프로그램 추진을 원활히 행하고, 교육기관설립을 통한 수요지향적 인력양성 확보가 원활하며, 숙련된 연구개발 인력 보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재무적 성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설 2의 결과를 살펴보면 융합역량은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요인으로는 융합기술개발역량과 융합교육학습역량이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융합기술개발역량은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융합경영을 행하는 기업에서 융합경영을 수행하면서 융합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융합경영을 수행하면서 기초, 원천, 융합기술에 대한 강화노력을 경주하며,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지원과 융합분야 국제 표준화 선도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면 비재무적 성과는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융합교육학습역량은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융합경영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융합경영을 수행하면서 융합기술 전문 교육프로그램 추진을 원활히 행하고, 교육기관설립을 통한 수요지향적 인력양성 확보가 원활하며, 숙련된 연구개발 인력 보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비재무적 성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REFERENCES

- [1] B. J. Kim, "The influence of strategic adaptability to market dynamism on performance in Korean consumer packaged goods market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1990.
- [2] B. S. Park, "A study on the marketing strategy for actual activation plan of inter-business information and technology exchange of small & medium industries," Th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2000.
- [3] C. H. Choi, "Effects of Internal Service Quality on Internal Customers'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Tourist Hotels," The Graduate school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6.
- [4] Chandler, G.N., Hanks, S. H., Founder Competence, The Environment, And Venture Performance, Et &P, pp. 77-89, 1994.
- [5] Child, J., "Organization Structure, Environment And Performance : The Role Of Strategic Choice," Sociology, Vol. 6, pp. 2-22, 1972.
- [6] D. H. Lee,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the Degree of Different Business Exchange Activation on Business Performance in Small & Medium Venture Industry," The Graduate school of Gunguk

University, 2009.

[7] Hambrick, D.E. & Mason, P.A., "Upper Echelons : The organization as a reflection of its top manager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9, pp. 193-206, 1984.

[8] J. H. Song, "An Empirical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MEs and the Performances of Hetero-Sectoral Exchanges," The Graduate school of Hannam University, 2008.

[9] KIET, "Small fusion activity status and Revitalization - Corporate centered between technological convergence," KIET, 2011.

[10] Mahoney, J., Pandian, J.R., "The Resource-based View Within the Conversation of Strategic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3, pp. 363-380, 1992.

[11] Nanus, B., *Visionary Leadership*, Jossey-Bass Publishers, San Francisco, CA, 1992.

[12] O. H. Kim, "A Study on the performance analysis of interchange activities amo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ybrid businesses and their activation plans," The Graduate school of Hanbat National University, 2005.

[13] Prahalad, C.K., and Hamel, G., "The Core Competence of the Corpor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Vol. May-June, pp. 79-91, 1990.

[14] Quinn, R. E. & Rohrbaugh, J., "A Spatial Model of Effectiveness Criteria: Towards a Competing Values Approach to Organizational Analysis," *Management Science*, Vol. 29, pp. 363-377, 1983.

[15] S. H. Jeong, "Influences of Empowerment and Leadership on Employees' Attitudes,"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2001.

[16] S. M. Kim, Y. J. Kim, "Analyzing the Job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in Korea,"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39(2), pp. 63-87, 2005.

[17] T. K. Wang,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Individual Level," *Journal of Organizational Studies*, Vol. 4(1),

pp. 63-90, 2007.

[18] Westley, F., Mintzberg, H., "Visionary Leadership and Strategic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0, pp. 17-32, 1989.

**최 승 일(Choi, Seung-Il)**



- 2003년 8월 : 경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1999년 3월 ~ 2005년 2월 : 경남대학교 강의
- 2004년 8월 ~ 현재 : 부산대학교 강의
- 2008년 8월 ~ 현재 : 창원대학교 강의

- 관심분야 : 마케팅, 글로벌경영, 융합경영
- E-Mail : csi0305@naver.com

**송 성 빈(Song, Seong-bin)**



- 1997년 2월 : 경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13년 2월 : 창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12년 9월 ~ 현재 : 창원대 융합협력센터
- 2011년 5월 ~ 현재 : 오산기업자문단 대표컨설턴트

- 관심분야 : 융합경영, 글로벌 경영
- E-Mail : ssb222@naver.com